Focus Group Conference
Finding Game Changer

프로그램북

FGC 2014 MTN 글로벌 컨퍼런스

Focus Group Conference
Finding Game Changer

2014년 11월 27일 (목) | 여의도 IFC몰 CGV 3관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4 MTN 글로벌 컨퍼런스

FGC

Focus Group Conference / Finding Game Changer

CONTENTS

· 초청의 글 2

· 컨퍼런스 프로그램 4

· 주제리포트 5

· 연사소개 15

미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측... 분석, 전망.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왜 미래를 알려고 하는지,
알아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대표 혁신 미디어, 머니투데이는 변혁의 시대에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미래를 향해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결정체인 방송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2014 F.G.C 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이 글로벌 산업지형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발휘할 스마트파밍, 빅데이터, 3D프린팅, 핀테크, 바이오헬스케어 등 5가지 혁신적 기술을 선정해 글로벌 헤게모니 경쟁과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의 아버지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이머징마켓의 창시자 앙트완 반 아그마엘, 그리고 에이미 잘만 세계 미래학회 회장이 신영상기법을 통해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며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5대 혁신기술에 대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세션2에서는 자본시장과 투자의 관점에서 5가지 유망산업을 짚어보는 토의가 이어지고 창업과 SNS 전문가인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의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2014 F.G.C는 지식의 접근성에 선택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컨퍼런스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진화할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향연,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추구합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 태동하는 현장에서, 미래와의 연결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오늘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혁신적 컨퍼런스의 무대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현병택**

동아시아 최고의 혁신 파트너

To be the best partner in the East Asia for innovative collaboration

머니투데이미디어는 1999년 창립 이후 15년 동안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습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매체입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인터넷 뉴스 점유율 부문에서 경제지 1위, 전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한 독자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경제전문케이블TV 채널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1코리아, 한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온라인미디어 스타뉴스, 프리미엄 금융정보 서비스업체 더벨 등의 자회사가 활약하며 한국 미디어업계에서 신화를 종횡무진 써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룸버그, 로이터, AFP, CBSi(ZDNet, CNet), 인민일보, 허쉰왕, 중국망 등 유수 글로벌 미디어들과의 제휴관계를 통해 한국 미디어로는 드물게 글로벌화를 본격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타임스 터닝포인트와 로피시엘옴므, 레옹 등의 글로벌 패션잡지를 국내에서 발행하는 등 한국에서 글로벌 미디어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TN

24시간 생생한 경제, 산업 그리고 투자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고급 경제정보 채널

정확하고 심층적인 고급 경제정보

강력한 취재망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해 깊이 있고
유익한 국내 경제와 산업정보 전달

파워 실시간 투자정보

증권 시황과 종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증권 시황과
종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전달
온 · 오프라인 실시간 경제정보의 최강자인 머니투데이 콘텐츠 공유

자산 형성을 돕는 알찬 재테크 정보

예금 · 보험 · 증권 및 채권은 물론 외환 · 펀드 · 부동산 등
시청자의 자산운용을 돕는 다양한 정보 제공

컨퍼런스 타임테이블

11월 27일 (목)

시간	구분	내용
09:30 09:40	개막식	MTN 글로벌 컨퍼런스 F.G.C 2014
		개막 축하 영상 메시지
		환영사 |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 회장
		개막영상
		Future = N.O.W | 로봇 데스피안 & 데니스 홍 UCLA 교수
09:40 10:00	오프닝	Welcome to F.G.C | 최남수 MTN 부사장
		Vinton Cerf, Vice President, Google
	주제 리포트	눈앞의 미래, 우리의 예측을 무너뜨릴 혁신 솔루션은 무엇인가?
		Amy Zalman, President, World Future Society
		Margaret Ziegler, Executive Director, Global Harvest Initiative
		David Yermack, Professor, NYU
10:00 10:20	기조 강연	David Wood, Chair, London Futurists
10:20 11:30	세션1	와해성 솔루션과 산업지형도 변화
		김성태 융합산업연합회장
		이강원 SK텔레콤 ICT기술원 상무
		Thera Rohling, General Manager, Priva International Beijing
		배영우 한국IBM 산업가치창조본부 상무
		Daniel Thomsen, General Manager, Stratasys Korea
11:30 11:50	영상	Future. Generation. Communicator | 반기웅 MTN 기자
		What do you know for sure? | 이규창 MTN 기자
11:50 12:00	특별 강연	Antoine Van Agtmael, Senior Advisor, Garten Rothkopf
12:00 12:58	세션2	자본시장 가치업종의 변화
		예민수 MTN 앵커
		Jonathan Baer, Managing Partner, Threshold Ventures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준철 VIP투자자문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George David Smith, Professor, NYU
12:58 13:00	폐막식	엔딩 크레딧

Focus Group Conference
Finding Game Changer

2014 FGC

주제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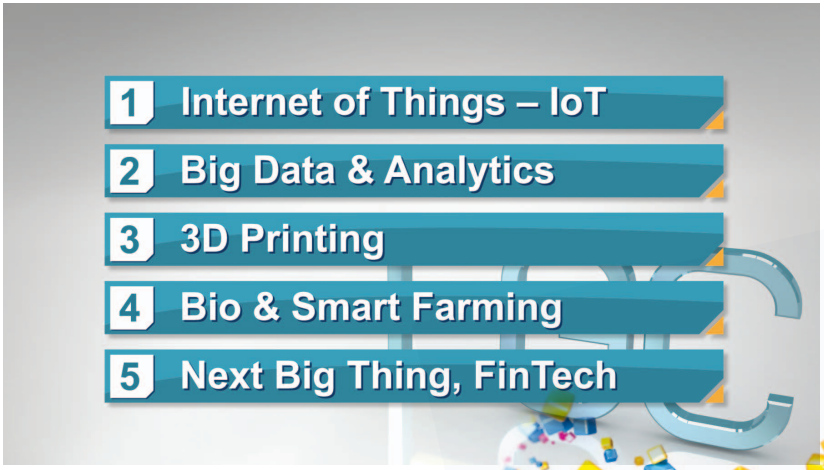
|주제|

5년 이내 글로벌 산업 지형도를 바꿀
미래 주력산업과 게임체인저의 조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부사장

- YTN 보도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경영기획실장
- 서울경제신문 정치경제부 기자
- SBS 경제부 기자
- UC Berkeley MBA

2008년 발화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미국과 유로존 등 '경제 거함'이 난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체력을 다시 다져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고 경기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술경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삶과 사회경제 변화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폭과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존 질서의 파괴시대'를 열고 있다.



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웹과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제 모바일 시대를 지나 사람과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단순 IT의 경계를 넘어 모든 것들이 융합되는 '초융합사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제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들이 사물인터넷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2 빅데이터 & 애널리틱스

인류는 실시간 연결과 소통의 '스마트 혁명'으로 디지털 데이터가 폭증하는 데이터 홍수(Data Deluge) 현상에 직면하였고, 기존의 저장, 관리, 분석 체계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가 중대 이슈로 부각되며 나온 것이 빅데이터(big data)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정보 및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이로 인해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경쟁자들과의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미래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위험을 해결하는 사회 발전의 엔진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 3D 프린팅

제품의 틀인 주물기나 금속을 깎아내는 선반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설계도나 재료만 있으면 어떠한 제품도 만들어 낼 수 있는 3D 프린터 도입은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3D 프린터는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므로, 생산,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가트너는 2015년부터 3D 프린터 출하량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2018년에는 23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등 3D 프린터의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 시간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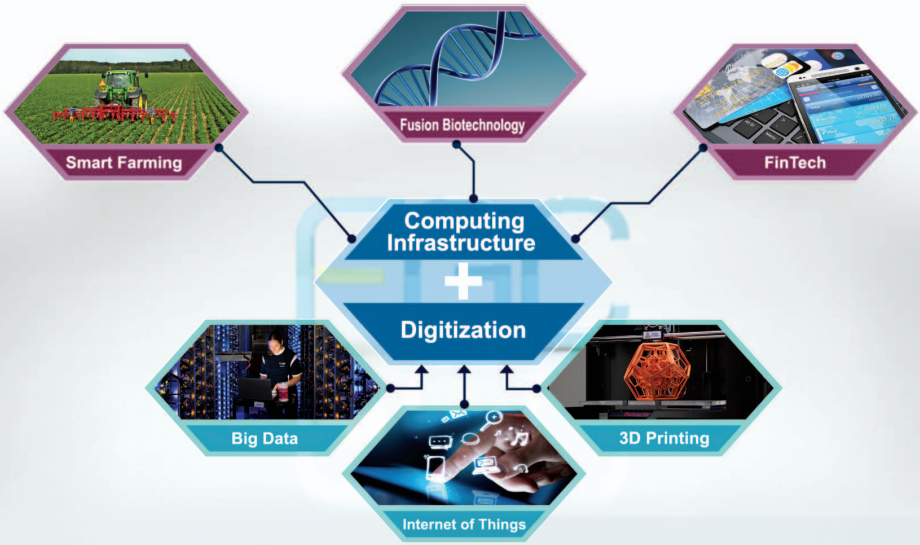
4 BIO & 스마트 파밍

인구의 급증과 기상 이변으로 식량 문제는 점점 글로벌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글로벌 하베스트 이니셔티브(GHI)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90억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식량 생산량이 인구 소비량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식량 대책은 인류의 풀어야 할 필수 사항이다. 전통적으로 하늘에만 맡기던 농업에서 ICT 기반의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의 전환은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5 Next Big Thing, FinTech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다. 모바일 결제, 송금, 온라인 개인 재정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서비스와 결합한 각종 신기술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컨설팅 기업인 액센추어는 '글로벌 핀테크 투자붐'과 '핀테크의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벤처에 대한 국제투자가 5년 만에 3배로 증가했고 2018년까지는 8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듯 산업 각 분야에서 혁신의 기력은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도가 더 가속화돼 지금 우리는 혁신의 완전히 새로운 물결의 정점에 서 있다. 혁신의 물결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힘과 속도로 우리의 모든 사고, 행동 및 생산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발견을 이루어내며 새로운 산업 지형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안에서는 또 다른 메가트렌드의 새로운 두뇌지대(brainbelt)가 건설되고 있다.



공유자원으로서의
지식 두뇌업

신기술은 낡은 개념을 파기하고 있다. 중국에 영원히 뺏길 것만 같았던 노동집약적 산업은 로봇공학과 3D프린팅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선진국에서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잘 맞는 신발과 옷을 만들어낸다. 보다 똑똑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제품을 싸게 만들기 위해 집중했던 제조산업은 보다 더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한 협력의 새로운 융합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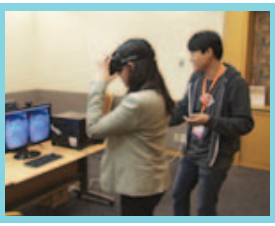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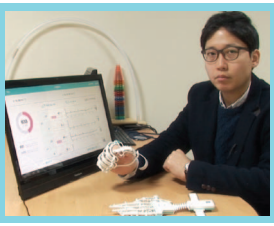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
미래 산업지형도의 핵심「BRAINBELT」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우리는 이를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 '브레인벨트(Brainbelt)'라 명명한다.

지난 세기 우리는 경제적 혁명을 그 안에 깊이 빠지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바퀴, 인쇄기,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도,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혁신의 물결은 또다시 선진국의 두뇌센터(brain centers)에서부터 분명히 태동하고 있었다. 높은 벽 안에 안주한 학부나 고립된 기업 연구소의 낡은 칸막이식 사고(silo thinking)는 허물어지고 다가올 미래에는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새로운 제품은 달라진 생산방식과 정보기술, 신소재와 센서, 그리고 생명과학의 발견과 같은 신기술과 융합될 것이다.

발로 뛰며 현장을 보고 듣고 익힌
오픈소스 지식 컨퍼런스「2014 F.G.C」

산업지형도의 새로운 혁명과 경쟁력의 기준을 제시한 '변화의 핵' F.G.C 취재팀은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취재, 분석을 위해 미국・유럽 등의 기업과 대학, 그리고 글로벌 전문가들을 직접 방문했다.

>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가들

–기술경영경제학의 창시자 조지프 슘페터

새로운 세대의 발명가들과 청운의 뜻을 품은 창업자들은 새로운 브레인 풀 내에서 자유롭게 누비고 다니면서 자주 서로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극을 주거나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능 공유와
스마트한 새로운 세상

신소재와 의학적 발견에서 로봇공학, 3D프린팅 그리고 센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등 다른 기술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지식의 개방과 공유는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작업과 개방혁신이 더 활력을 띠게 된 이유는 명쾌했다. 기업, 대학 그리고 당국이 그들이 함께한 공동작업이 더 좋은 결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개방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본적인 연구에 대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기업들은 신제품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능의 공유는 혁신의 본질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어려운 주제를 풀기 위해 전 세계에 분포한 수천 명의 지능을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한다. 한때 1000만 달러의 비용을 사용해야 했던 시제품은 이제 3D프린터를 사용해 5만 달러의 비용으로 신속히 제작할 수 있고 젊은 연구원들은 전문 지식을 필요에 따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기술의 통합을 통해 더이상 농업, 제조업, 그리고 (정보통신을 포함한) 서비스업으로 분할하는 경제의 구시대적인 구분은 사라질 것이다. 대신 정보기술과 금융이 누렸던 것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 생태계의 지형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개방. 공유. 협력. 비즈니스와 기술 간의 장점을 융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재창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혁명 2014 F.G.C가 제시하는 미래로 향한 길을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스마트사회에서 IT는 사회문제 해결과 융합혁신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다

– 김성태 융합산업연합회장

> 우리는 비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 남들이 보지 않는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업가의 능력입니다.

– 조지 데이비드 스미스 NYU 교수 인터뷰 중

Focus Group Conference
Finding Game Changer

2014 FGC

연사 소개

|세션1| 와해성 솔루션과 산업지형도 변화

좌장

김성태
융합산업연합회
회장

· UN ITU-UNESCO 고위급 브로드밴드 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미래준비포럼(사) 의장
·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행정대학원 원장

|세션2| 자본시장 가치업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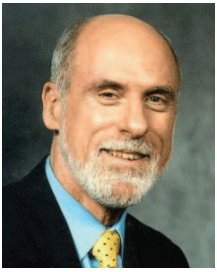
진행

예민수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 방송저널리스트
· MTN 예민수의 마켓온 진행자
· 매일경제TV 기자
· 한국경제TV 취재팀장
· 홍익대 경영학 박사, 겸임교수

|오프닝| Welcome to F.G.C

인터넷, 허락이 필요 없는 혁신



Vinton Cerf
Google
Vice President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의장
· 구글 부사장 및 수석인터넷 전도사
·'인터넷의 아버지'
  – 인터넷과 TCP/IP 프로토콜의 탄생에 기여
· 1992 인터넷 협회 창립 – 초대의장

인터넷은 전 세계에 걸친 컨텐츠 수집과 공유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은 미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첫째로 시장의 잠재력을 확장해주고 3D 프린터, 로봇 등의 기술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반전을 불러왔다. 또 인터넷으로 작동되는 가전 제품과 센서 등이 일반 인터넷 환경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원격 작동과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들이는 개방된 공간이다. 우리는 이를 "허락이 필요 없는 혁신(Permissionless Innovation)'이라고 부른다. 컴퓨터에 기반한 여러 기능들이 점점 더 많이 생산 시스템에 도입되면서 다시 한 번 산업 환경의 진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제리포트| 눈앞의 미래, 우리의 예측을 무너뜨릴 혁신 솔루션은 무엇인가?

Outlook 2015

Amy Zalman
World Future Society
President

·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회장
· 워싱턴 National War College의 국방정보통합의장
· Leidos(국제 과학응용 기관) 전 선임연구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매우 복잡하며 다이내믹하고 빠르게 변화한다. 이와 함께 미래는 매우 가까이 와있다.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미래에 대한 발상, 테크닉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세계를 보전하고, 우리를 포함한 미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로봇에서 나노기술, 그리고 생물학적인 기술 변화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에 대해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디트로이트와 한국과 같이 기존의 자동차 제조 또는 공산품 생산을 하는 20세기 산업모델은 변하고 있다. 우리의 자원 또한 변하고 있으며 물과 천연자원들은 제한되어 있다. 햇빛과 바람과 같은 새로운 자원을 생성하는 방법과 어떻게 쓸 건지를 연구해야 한다.

기술과 빠른 변화, 특히 정보기술, 통신기술, 그리고 컴퓨터 사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매년 지구환경 문제와 같은 과학적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연말에 모든 사안들을 취합하여 우리를 포함한 각 특정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순위를 정한다. 이 내용이 전해질 2014 F.G.C를 통해 세계미래학회가 선정한 다양한 쟁점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강연|

혁신 솔루션, 미래 주력산업의 변화와 미래 가치

Antoine Van Agtmael
Garten Rothkopf
Senior Advisor

· Garten Rothkopf 수석 자문
· 사모펀드 "신흥시장 성장펀드" 론칭
·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문회사
Emerging Market Management 창업자 및 대표
· 「Emerging Market Management」 저자

30년 동안 세계경제를 연구하고 신흥시장에 투자한 경험을 통해 경쟁력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현재보다 더욱 스마트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제 누가 가장 싼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아닌, 누가 가장 스마트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중국 등 신흥시장에 영원히 뺏길 것 같았던 노동집약적 산업은 로봇공학과 3D프린팅의 발달에 힘입어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잘 맞는 신발과 옷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신흥 경제들은 최고의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고 보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욱 벌어지는 혁신의 격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달리 미국과 북유럽은 경쟁력이 노동력에서 지적 능력으로 변화하면서 다시 한 번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혁신을 재창조했을까? 결국은 협력의 힘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대학, 정부기관, 대기업, 벤처기업들이 함께함으로써 이들은 더욱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됐고 다시 혁신의 첨두에 서게 됐다. 2014 F.G.C를 통해 여러분들이 협력적 혁신과 광범위한 스마트제품의 결합을 통한 혁명적인 희망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기조강연|

첨단기술의 두 얼굴

David Wood
London Futurists
Chair

- 영국 미래학회(London Futurists) 회장
- 전 엑센추어 최고기술책임자 (Chief Technology Officer)
- 「2025 미래보고서」, 「스마트폰과 그 이상」 저자
- 영국 T3 매거진 "2009 가장 영향력 있는 테크놀러지 100인"선정

다가올 10년에서 25년여의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산업계, 정치계, 기술계, 학계, 미디어 분야의 리더들이 앞으로 다가올 기회와 위기를 생생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취해야 할 우선순위를 보다 현명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미래 연구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미래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대되는 세 가지 융합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와 생물학의 융합,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융합, 그리고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이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는 엄청나게 늘어난 수명과 발달한 지능, 증진된 건강, 향상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달의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우리는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점점 불안정해지는 금융시스템, 늘어가는 실업, 증가하는 불평등과 차별, 높아지는 테러의 위험, 사생활 침해와 보안의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갖는 양면성에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품성인 비전, 솔직함, 개방성, 근면성, 혁신성, 협동성이 필요하다.

MTN 2014 F.G.C를 통해 스마트폰 산업에서 지난 25년 동안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경험한 사례를 활용, 런던미래학회(London Futurists) 의장으로서 휴머니티 2.0 (Humanity 2.0)에 대한 솔루션의 로드맵을 소개할 계획이다.

|세션1| 와해성 솔루션과 산업지형도 변화

Iot = Now

이강원
SK텔레콤 ICT기술원
상무

· 전 IBM Watson 연구소 RSM 매니저
· 무선 네트워크/보안 연구
· Cloud Computing 연구
· IT & Wireless Convergence 그룹

사물인터넷으로 불리는 IoT (Internet of Things)는 요즘 기술 트렌드의 한가운데 있다.

가트너 등 많은 기관들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적으로 많은 수의 IoT 기기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IoT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IoT를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IoT의 정의조차 분명하지 않다.
IoT란 과연 무엇일까?
현재 IoT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
사람 숫자보다도 많은 수의 IoT기기가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수 많은 IoT기기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야 할까?

2014 F.G.C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리뷰하고 IoT 분야의 최근 활용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션1| 와해성 솔루션과 산업지형도 변화

스마트 파밍의 미래와 산업의 영향-성장을 위한 기후 환경 창조

Thera Rohling
Priva International Beijing
General Manager

· PRIVA
(네덜란드 최고의 에너지 친환경 Smart Farming 기업)
아시아태평양 대표
· 네덜란드 정부행정 투자기관
Rotterdam Investment Agency 아시아 대표 역임

기존의 농업 방식은 막대한 양의 물과 자원을 낭비했지만 생산성은 매우 낮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추세의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식품 생산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수십 년간, 독일의 농부들은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이용해 천연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평방미터당 곡물 수확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네덜란드 역시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 생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진보된 농업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현대 농법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 없이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2014 F.G.C를 통해 자동화된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할 미래 신사업으로 스마트파밍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션1| 와해성 솔루션과 산업지형도 변화

컴퓨팅의 새로운 시대 – 인지컴퓨팅

배영우
한국IBM 산업가치창조본부
상무

· 서비스사이언스 전국 포럼·학회 운영위원 역임
· 한국IBM연구소 전략기획·헬스케어 솔루션 연구개발
· 한국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연구개발(IBM ViaVoice)

최근 들어 전세계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홍수시대를 맞아 컴퓨팅 시스템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 컴퓨터는 프로그램된대로 동작하는 계산능력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둬왔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추론을 하고 가설을 세워 증명하는 인지능력에 기반한 인지컴퓨팅 시스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초 상용화된 인지컴퓨팅인 IBM의 Watson은 암센터에서 암전문의사의 의료진단을 도우며 의료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의 암센터인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암센터 및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진료지원 및 임상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Watson은 빅데이터인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과 학습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 제시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암관련 수십만 건 이상의 사례, 42개 넘는 의학전문저널의 학습된 지식으로 의료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Watson의 핵심기술은 3가지다. 첫째는 자연어 처리기술, 둘째는 추론을 통한 가설의 생성 및 검증, 셋째는 기계학습이다. 이 기술로 이루어진 인지컴퓨팅은 고객경험을 혁신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션1| 와해성 솔루션과 산업지형도 변화

Changing the Face of Manufacturing

Daniel Thomsen
Stratasys Korea
General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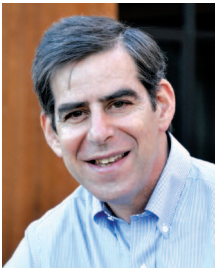
-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지사장
- 스트라타시스 아시아태평양 지사, 한국 및 ANZ (호주/뉴질랜드) 지역 Territory Manager
- Objet 아시아태평양 지사 마케팅 이사

최근 몇 년간 3D프린터는 대중과 미디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3D프린팅 기술은 25~30년 전부터 산업현장에서는 많이 활용된 기술로, 개인이나 산업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은 제품 개발주기에 적용해 시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주로 사용됐다. 현재 3D프린팅 기술의 활용은 시제품 제작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히 향후에는 제조분야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큰 변화와 다양한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본 강연에서는 3D프린팅 기술과 시장 잠재력을 소개해 향후 이 기술이 어떻게 미래 산업지형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세션2| 자본시장 가치업종의 변화

미국 벤처캐피탈 테크의 투자 트렌드



Jonathan Baer
Threshold Ventures
Managing Partner

· Threshold Ventures 창업자
·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 멘토 선정
· IBM 스마트캠프 멘토
· 기업의 전략적 계획 구축 및 비즈니스 성장 자문 역할

오늘날 세계는 점점 구분이 없어지고 있고 세계적 기업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다가오고 있다. 기술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미래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은 많지만 그보다 제품, 고객, 시장성을 발굴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다.

2014 F.G.C를 통해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시장의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D 프린터와 로봇기술은 수십 년 동안 개발 단계에 있었다. 기술의 적용이 바로 그 해결책이다. 성공은 고객의 요구와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이해도 수반된다. 적절한 타이밍은 보조기술과 특정 요소비용에 기반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시장에 너무 빨리 진입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너무 늦게 진입한 경우도 있다. 또한 언제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기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나 문제점에 주목하는 것이 더 낫다.

|세션2| 자본시장 가치업종의 변화

기술과 혁신에 기대하는 글로벌 증시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 CFA 한국협회 회장
· 주식투자전략가(Equity Strategist)

저성장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저성장 환경에서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저성장 패러다임의 반대급부일지도 모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신기술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관련된 투자와 인수합병 열기 또한 뜨겁다.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 측면과는 다르게 새로운 100년과 1000년을 눈앞에 둔 90년대 후반 당시 또한 새로운 기술과 진보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수요, 그리고 기술주와 바이오주 주도의 주가 상승 등은 당시 상황에 대한 데자뷔를 연상케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술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 현황을 살펴보고 90년대 후반과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유사점을 비교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세션2| 자본시장 가치업종의 변화

가치투자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기술

최준철
VIP투자자문
대표

· 2003년 대학생 금융벤처 1호
VIP투자자문 창업
· 대한민국펀드어워즈 최우수투자자문사 2년 연속 수상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열정: 가치투자 10년의 기록」
저자

가치투자의 대가 워런버핏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투자의 방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미래기술의 발전을 통한 산업지형도의 변화에 가치투자자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투자시장에서 발견되는 또다른 메가트렌드다. 실제로 가치투자의 진보진영은 인터넷서비스를 생활필수재로 규정하고 투자한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나 아멕스에 대한 투자가 구글과 페이팔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per의 정당성은 capex 부담이 없는 사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지속성과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컨슈머의 보편적 요인들에는 브랜드나 반복소비, 진입장벽이나 본연수요 등이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국의 YY, 국내의 멜론과 사람인 등의 사례를 통해 기술에 대한 가치투자자들의 시선을 분석하고, 전세계 기술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투자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세션2| 자본시장 가치업종의 변화

왜 세계는 스타트업에 열광하는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 라이코스 CEO
· 다음커뮤니케이션 글로벌부문장
· 조선일보JNS(조선일보 일본어판)대표
· UC Berkeley MBA

전세계가 스타트업 열기에 휩싸여 있다. 영국,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창업국가인 이스라엘이나 아랍국가들까지도 스타트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꿈꾼다. 실리콘밸리와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중국은 알리바바 대박에 이어 4년 만에 40조원대 가치회사로 성장한 샤오미 같은 신성들이 나올 정도로 창업열기가 뜨겁다.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투자와 인수합병에 여념이 없다.

전세계가 왜 이렇게 스타트업에 달아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Focus Group Conference
Finding Game Changer

2014
FGC
파트너사

파트너사

HYUNDAI MOTOR GROUP

신한금융그룹 SHINHAN FINANCIAL GROUP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SMART BANK 외환은행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삼성화재 SAMSUNG

우리투자증권

KDB산업은행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삼성생명 SAMSUNG

KB국민카드

DOOSAN

LG U+

KUMHO TIRE

DAESANG 대상주식회사

삼성증권 SAMSUNG

손해보험협회

스포츠토토

WINIX

내일을 향한 금융 한화생명

현대증권

하나대투증권
현대해상
신한은행
CJ POWERCAST
서울우유협동조합
coway
한국증권금융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한국감정원 Korea Appraisal Board
KDB대우증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kt
LIG 손해보험
KYOBO 교보생명
동부화재
동서식품
MERITZ 메리츠화재
SAMSUNG 삼성전자
코오롱
posco 포스코건설
효성
SYSO COMMUNICATIONS
NH농협증권
Hanwha

PASSWORD
1234
567
89
10
HACKING
21%
50
40
30

FGC 2014 MTN 글로벌 컨퍼런스

Focus Group Conference
Finding Game Changer